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Here I am Lord (Eng, 별첨 악보)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164 (떡과 술의 형상에)	O God Beyond All Praising (Eng, 별첨 악보)

제 1독서 | 지혜 9,13-18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좌)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

○ (우)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나이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좌)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 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우)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독서 | 필레몬서 9-10,12-1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4,25-33



오늘의 복음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
 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
 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
 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

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
 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전례 음악의 보물, 그레고리안 성가에 관하여>

‘그레고리안 성가(Gregorian Chant)’는 제64대 교황이신 성 그레고리오 1세(590-604년 재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전례 음악입니다. 주로 라틴어로 불리는 이 성가는 악기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드리는 기도의 노래이며, 자유로운 리듬 안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성가를 직접 작곡하시거나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 교황님께서는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성가들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음악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집대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성가들은 미사와 성무일도, 여러 축일 전례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수 세기에 걸쳐 교회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토록 성음악의 전통을 소중히 여길까요?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156항 “은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합니다.)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

1157항 노래와 음악은 기도의 아름다운 표현, 회중 전원의 일치된 참여, 그리고 전례 거행의 장엄함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 표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래와 음악은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聖化)라는 궁극 목적에** 이바지합니다.

KYRIE

15th-16th century

Ký-ri - e - - lé - i - son.
 키 리 에 에 레 이 손

Chri - ste - - lé - i - son.
 크리 스테 에 레 이 손

If the Kýrie is sung with the traditional nine-fold petition, the following is sung as the ninth (and final) petition:

Ký-ri - e - - lé - i - son.
 키 리 에 에 레 이 손

오랫동안 방황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삶

아우구스티노는 서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고 더 이상 식민지가 생겨나지 않는 시기에, 귀족들의 사치가 극에 달해 빈부 격차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이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여 교세가 확장되는 시기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던 북아프리카 타카스테는 당시 이단이 성행했던 곳이었으며, 여기에는 선신과 악신을 두는 마니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총명했지만, 세상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질이 있었다. 어렸을 때는 학생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유희를 즐기는 선생님들에게 실망하여 학교를 등졌다. 반항심이 가득했던 그는 타카스테의 골목대장이 되었고, 이에 걱정이 앞선 어머니 모니카 성녀는 그를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낸다.

그는 유학 시기 중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집단 도둑질을 하기도 했고, 청소년기의 욕욕을 잠재우지 못하고 아데오타두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들을 얻고 난 뒤에는 다시 공부에 몰두하였고 이때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이 단어는 오늘날의 '철학'의 어원이 된다)이라는 단어를 보고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자의식이 충만했던 그는 성경 역시 비판적으로 읽었다. 그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마니교에 빠져 버렸다. 마니교는 선신과 악신의 투쟁이라는 교리를 기본으로 한다. 욕욕에 빠져 죄를 지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악행을 악신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니교 교리에서 위안받은 것이다.

이후 수사학 교사가 된 아우구스티노는 선과 악의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골몰했다. 그러던 중 암브로시오를 만나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본래 아우구스티노는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암브로시오를 공격하기 위해 황제에게 파견되어 밀라노에 갔던 터였는데, 오히려 암브로시오의 탁월한 인품과 설교에 반해 버린 것이다. 이 만남에서 암브로시오는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현대적인 관점

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선구적인 가르침을 전했다. 이에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이 성경에 대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오를 만나고 신플라톤주의를 공부하며 그의 인생은 새로운 막으로 진입했다. 비록 여기에서도 내면의 공허함은 때때로 그를 괴롭혔지만, 암브로시오가 추천해 준 바오로 사도의 서간, 특히 갈라티아서 읽으며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해 설명하는 바오로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갈라 5,17)

이후 로마서 13장을 읽으며 자신을 괴롭혔던 욕망에서 회심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로마 13,12-14)

그 뒤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평생을 투신하게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자유지론),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삼위일체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 개인의 공동체가 무엇이며 참다운 정의와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인지(신국론) 등의 대작을 남기며 가톨릭 교회 사상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아우구스티노의 삶은, 그의 내면에 존재했던 자의식과 죄의 상처, 회의주의와 절망이 되레 교회 사상의 거룩한 도구로 승화하는 과정이라 볼릴 만하다. 하느님께서 비록 그가 젊은 날 방황하였지만, 그 안에도 선의 잠재력이 있음을 아셨던 것이 아닐지. 우리 역시 그렇다. 나의 잘못된 과거와 현재에도 이어지는 결점과 약점. 나의 그릇된 가치관과 욕망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거룩하게 이 기질을 사용하시도록 청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역시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회심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5' 모임 안내

- 모임: 수요일, 저녁 7시

(줌 온라인 -목주기도 회의실 ID와 PW 사용하여 참여)

* 모임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영상을 Youtube에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베트의 만찬”

* 작년과 같이 사목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가정 당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과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추석 한가위 미사 및 행사 안내

* 날짜: 10월 5일 (주일)

* 일정:

- 11:30 ~ 12:00 위령을 위한 연도 및 분향
- 12:00 ~ 13:00 미사
- 13:00 ~ 14:00 점심식사
- 14:00 ~ 16:30 율놀이 등 미니게임

<미사 후 행사 및 식사 나눔 안내 >

* 한가위 행사를 준비하며 성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경품을 준비하지만, 더욱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위하여 신자분들께 물품 도네이션을 겸손되이 청해보고자 합니다.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사목회위원 분들을 통하여 도네이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새서 1, 21-23

“여러분은 믿음에 기초를 두고
곳곳하게 건디어 내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8월 24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57명
9월 7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1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9월 7일)	루카반
다음주 (9월 14일)	마르코반

| 봉헌금 & 교무금 | (8월 30일 ~ 9월 5일)

봉헌금	\$ 325.90			
교무금	\$ 765			
구민식	권묘순	김천주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장호훈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현주	황병욱

| 기도 지향 |

- * 임양녀 세실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